

보도 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 일시	2021. 2. 3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영종청라개발과
담 당	과장 윤문상, 제3연륙교팀장 박춘곤, 담당 오영림(032-453-7621~4)

## “IFEZ, 영종하늘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”

### 7년 동안 미 개통된 영종하늘도시 해찬나래지하차도 해결방안 모색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.
- 인천경제청은 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인천시설관리공단, 중구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FEZ(인천경제자유구역) 영종하늘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.
- 이날 회의는 LH에서 영종하늘도시내 하늘대로를 지난 2013년 개설한 후 7년 동안 미 개통(해찬나래지하차도~제3연륙교 시점부)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해찬나래지하차도를 경유, 인천대교 방향으로 진출할 경우 차량 지체로 출퇴근 시 30분 이상 걸리는 등 교통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.
-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현재 도로는 개설됐으나 미개통 상태인 길이 1.75km, 왕복 8차선 규모인 하늘대로를 개통, 교통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.
- 인천경제청은 이에따라 하늘대로와 인근 도로(중로 1-558호선)를 연결하는 폭 12m, 길이 20m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제3연륙교 개통전까지 운

영을 통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인천경제청 등 참석자들은 △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하늘대로 개통 및 임시도로 개통의 필요성과 시급성 △사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리주체 △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계획을 완충녹지 구간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것 △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임시도로의 원상복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.
-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“오늘 회의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이 적극 나서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